

10월 2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2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3분기 GDP 2.9%..`성장률 서프라이즈'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6% 증가해,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 이후 세분기 만에 전년 동기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음.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전기비 2.9%, 전년동기비 0.6% 증가한 것. 한은은 지난 7월 수정한 경제전망에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음. 민간에서도 3분기 GDP 증가율이 1%후반에서 2%대 초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그러나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한은의 전망치인 -1.6%를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됨. 지출 측면에서 재고투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데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된 것이 3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의 주된 요인으로 제시했음.
美 상업부동산 뇌관 터지나..캠마크, 파산 전망	미국의 대형 상업용 부동산 대출업체인 캠마크 파이낸셜 그룹이 빠르면 이번 주말 안에 파산보호(Chapter 11)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 보도했음. 거주용 모기지 시장 붕괴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돼 온 가운데 훨씬 규모가 큰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인한 은행권 손실과 파장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왔음. 무디스에 따르면 캠마크는 100억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나섰음. 캠마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경우 소유주인 사모펀드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 등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난 2006년 KKR과 골드만삭스 캐피탈 파트너스, 파이브 마일 캐피탈 파트너스 등은 GMAC로부터 상업용 부동산 사업부를 매입했으며, 사명을 캠마크로 개정했음. 지난 3월말 현재 이들의 캠마크 보유 지분은 약 75%. 캠마크는 지난 2분기 16억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파산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음. 캠마크는 최근 북미 서비스 및 모기지 은행 사업부를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루캐디아 내셔널 코프가 새로 만든 회사에 팔기로 했다고 WSJ은 전했다.
美, 신종플루 국가비상사태 선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음. 백악관은 "비상사태 선포는 급증하고 있는 신종플루 환자들을 더 용이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보험 부담이 큰 환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는 사태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3일 신종플루가 미 50개 주 가운데 46개주에 퍼져 계절 독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수준에 다다랐으며, 미국내 감염자수가 수 백만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전세계 사망자의 5분의 1인 1000명을 넘는다고 밝혔음.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하락에도 80달러대..이번주 3.4%↑	국제유가가 23일(현지시간) 달러화 반등과 증시 하락 여파로 약세로 마감했음. 그러나 주가으로는 3% 이상 상승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2월물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65센트(0.8%) 하락한 81.19달러를 기록했다. 미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감에 따라 달러화 및 인플레이에 대한 헤지 수요가 감소했음. 또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왔던 뉴욕증시가 `차익매물`로 약세로 돌아선 점도 원유시장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국제유가는 이번 한 주동안 3.4%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작년 10월 이후 1년만에 배럴당 80달러선에 올라섰음.
GE 내년 사상 첫 수쿠크 발행 계획	제너럴일렉트릭(GE)이 사상 처음으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발행 예상 시점은 내년으로, GE캐피탈은 최근 이를 위해 잠재적인 이슬람 채권 투자자 몇몇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음. 블룸버그는 "구체적인 발행 규모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발행되는 수쿠크는 이자의 수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음. 대신 실물거래 및 투자를 통해 발생한 배당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함. 아울러 수쿠크 채권은 두드러진 투자 수익을 기록하고 있음. HSBC가 산출하는 수쿠크 지수는 올해 27% 급등, 메릴린치의 글로벌 투자적격 등급회사채 지수의 상승률 14.7%를 크게 웃돌고 있음. 발행 규모도 매년 늘어날 전망. HSBC는 역외 기업 및 정부가 발행하는 `글로벌 수쿠크`의 올 발행 규모를 70억달러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의 두배인 1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음.
땅값 상승세 둔화..전월비 0.31%↑	전국의 땅값이 여섯달째 올랐으나 상승폭은 둔화했음. 국토해양부는 9월 전국의 땅값은 전달보다 0.31% 오르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26일 밝혔음. 그러나 전월(0.36%)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했음. 땅값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3% 하락하는 등 급격한 침체국면을 보였지만 지난 4월 소폭 반등한 뒤 지난달까지 꾸준히 상승했음. 국토부는 그러나 올해 9월까지 누적상승률이 0.01%로 현재 지가는 지난해 10월 고점대비 4.1%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39%), 인천(0.43%), 경기(0.43%) 등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0.31%) 보다 높았으나 지방은 0.08~0.20%로 거의 변동이 없었음. 전국 249개 시·군·구 가운데 247곳이 상승했음.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하남시로 전달보다 0.73% 상승했음. 보금자리주택 미사지구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임. 이어 일산 서구가 고양시 뉴타운사업 등 국지적인 개발사업 진척에 대한 기대감으로 0.68% 올랐음. 서울 용산구는 한남재정비 촉진지구와 지역내 재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0.66%의 상승세를 보였음. 경기 의왕시와 인천 옹진군도 지역내 개발사업 영향으로 각각 0.63%, 0.61% 상승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Theme Analysis



Fixed Income Report

LEADING LIGHT



유성엽 팀장

T 2009-7080

E syy@leading.co.kr

권효정

T 2009-7085

E hjkwon@leading.co.kr

이유진

T 2009-7078

E yjlee@leading.co.kr